

손금주 · 김경진 · 이정현 무소속 3인방 엇갈린 행보

손금주, 민주당 노크
김경진, 총선 후 민주당
이정현, 한국당 거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의원 18명 중 무소속은 광주 북갑의 김경진 의원과 전남 나주·화순의 손금주 의원, 전남 순천의 이정현 의원 등 3명이다. 손 의원은 국민의당, 김 의원은 민주당,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들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손금주 "민주당에 들어가 신정훈·김병원과 정면승부" 신정훈은 손금주 의원이 쏘아 올렸다. 손 의원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됐다.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어디에도 동참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이번 민주당 입당 신청으로 나주시장·국회의원을 역임한 신정훈 민주당 지역위원장, 또 얼마 전 총선 출마를 밝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정면승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당내 기류는 부정적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입당 불허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했고 당 지도부와 사전교섭도 제기돼 이번에는

입당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경진 "강기정 정무수석이 입당 반대할 것" 김경진 의원은 '선 출마 승리, 후 입당'이라는 정면 돌과 전략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창당 집단 탈당 이후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하게 평가를 받은 뒤, 당선되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입당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9월말 민주당 전략기획국이 광주·전남에서 실시한 총선 경쟁력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 직후 민주당이 저를 입당시킬지 검토했다는 풍문을 들었다"면서 "민주당이 영입한다면 고맙지만, 차기 광주시장을 노리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역구에 자기 사람을 심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

능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갑은 강기정 수석이 내리 3선을 한 선거구로, 민주당의 총선 후보 선출에서도 강 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현 "좌파·우파 기득권 정치판을 갈아엎겠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위원에 당선됐다. 탈당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정면돌과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헌신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며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복당설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좌파·우파 기득권 정치판을 갈아엎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정국 이후 지역에서의 공식 행사나 모임은 물론 설이나 추석 명절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정치적 휴지기를 가져왔다.

그는 항소심 재판 직후(뉴스1)과 통화에서 "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3인방인 손금주·김경진·이정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각기 다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이들의 내년 총선 성적표도 궁금해진다.

文대통령, 19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국민과 직접 소통

"진솔하고 격의없는 대화 기대...마음 다해 준비"

취임 후 2번째 자리...입기 후반부 '소통'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문 대통령이 진행자와의 대담이 아닌 국민과 직접 대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번째다. 입기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회자도, 기자도 아닌 국민과 직접 만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본 방송에는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5년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입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날 대화 형식은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방식은 공개 자유토론 방식이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을 청취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사회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직접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타운홀미팅' 방식을 준용했다.

지난 5월9일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송현정 KBS 기자의 진행으로 1대1 대담 형식이었다.

그보다 앞선 2017년 8월20일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을 열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가진 바 있다.

이번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MBC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1



신당창당 관련 오찬 갖는 권은희·유의동

권은희·유의동 변혁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취재진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 창당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국 소환 조사 감감무소식...말못할 이유라도 있나"

바른미래 "靑, 수사 공정성 의심하게 하는 거동 용납 안돼"

바른미래당은 10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속히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늦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정 교수와 혐의가 공통되는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소환 왜 이리 늦는가, 무슨 말 못 할 이유라도 있는가, 지체된 정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이 점을 각

별히 명심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정권의 운명을 가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길 경우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조 전 장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거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